

국군의 날 특집

수계 장병 전역후 관리 전무...대책은?

1958년 군포교 시작 이후 군포교 현장에서는 수많은 과제와 개선점들이 제시됐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설립 후 군포교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군포교가 갈 길은 멀다. 10월 1일 국군의날을 맞아 군포교 현황과 미래를 진단했다.

지난 5월 30일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법당에서는 낙성 이후 첫 수계법회가 열렸다. 청소년교화연합회 총재 현성 스님이 법사로 나선 이날 법회에는 3500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장병들이 모였다. 호국연무사 법당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수계법회에 참석하는 평균 장병 수는 4~5000여 명. 호국연무사만 해도 매년 10만 명 이상의 수계장병을 배출할 수 있는 규모다. 이날 호국연무사에 모인 장병들이 군법당을 찾게 된 계기는 몇 가지로 추려졌다.

“입대 전부터 부모님따라 절에 다녔습니다.”(김일환 훈련병·24) “집안이 본래 불교예요”(최익현 훈련병·22) “등기일이 연무사에 가길래 따라 나왔습니다”(김정남 훈련병·23) “떡을 것을 많이 줘서요”(장지수 훈련병·20)

당시 수계법회에 참석한 장병들 대부분은 가족과 친구들, 혹은 여러 조건들의 영향으로 불자가 되기를 결심했다. 과연 이들이 제대 후 신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군종교구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수계인원이 12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선 현장에서 군포교 현장에서의 초발심했다는 이를 찾기는 쉽지 않다. 젊은 남성 불

자들이 불교를 접하는 관문으로 군포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착 제대 이후 이들을 관리하는 사후 프로그램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일선 한 부대의 군법사는 “장병들이 군법당에 열심히 나오더라도 제대 이후 생활에 열심히 다니지는 않는 것 같다”며 “수계 이후 불자로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군법사는 “전역 후 불자장병들이 인근 생활에 다니고 싶어도 대불련, 청년회 프로그램의 부재 등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제대이후 관리 부재가 10여년 전부터 논의되던 것이란 점이다.

유선재 대불련 총동문화 군포교지원단 단장은 “예전부터 수계인원을 종단과 지역 생활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연계가 원활치 않았다”며 “이대로 간다면 실속없이 수계에만 치중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불교계의 제대 이후 관리 부재 문제는 이웃종교의 경우에서 극명히 비교된다. 천주교의 경우 세례대장과 교적제도를 통해 세례를 받은 교인들을 관리하고 있다. 천주교의 경우 세례는 단 한번 밖에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세례 인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세례대장은 세례를 받은 곳에서 관리하며 교적은 이사를 가거나 이동시 해당 관할 성당으로 이관된다.

군종교구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최근 전산화를 통한 연계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고 있다. 군종교구는 수계를 받은 군장병들이 전역 뒤 지역사찰과 청년회, 대불련 등에서 이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포교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군법당에서 조계종 신도증을 받은 장병은 360명. 군종교구는 신도증을 받은 이월부터 일



군법회에서 예배를 올리고 있는 장병들. 이들을 담당할 불자들로 이끄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간 10만 명 수계...제대 후 신생활 미지수 청년회·대불련 등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 준비 SNS·사이버 법당 포교 대안으로 모색

선 생활에 통보할 예정이다.

군종교구 총무국장 지선 스님은 “전산화 프로그램이 개발 완료 되면 일선사찰에서 수계 인적정보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하지만 수계장병들의 리스트 만을 가지

고 지역사찰과 교구본사에서 이들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먼저 전담 인력의 부족이다.

최경환 대불련 회장은 “군종교구 측이 보내오는 전역 불자장병 리스트만 가지고 지역사회나 대불련에서 무조건 관리하

도록 하는 것은 사찰 내 인적 자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군포교 현장에서는 사이버 포교가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현역 최선임인 김용 법사(육군 군종감)는 “최근 SNS를 활용한 포교, 사이버법당 등은 포교현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큰 효과를 보고 있다”며 “전역 이후 일선 사찰에서 법회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적극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군포교 현황

무종교 장 사병 불자화에 주력

1958년 5명의 군종장교 후보생이 임관하며 시작된 군포교. 50년이 넘는 동안 군포교 현장에는 젊은 장병들을 불교로 이끌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이들이 있다.

군종교구의 2012년 자료에 따르면 군승 13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민간 포교 지원 인력으로 비구니 스님 8명, 스님 85명, 포교사 293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웃종교의 기독교 군목사 268명, 천주교 군신부 94명 등에 비하면 열악한 상황이지만 성과는 높다. 2010년부터 수계인원이 10만 명을 넘고 있으며 군장성 불자지도 활성화되고 있다.

문제는 군내 신자수가 줄고 있는 것. 군내 신자 수는 2007년 11만 1000명을 기점으로 2008년 10만 4000명, 2011년 8만 9000명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전체 군 장병 수가 줄어들고 있는 영향도 있지만 종교를 갖지 않는 장병들의 수가 늘고 있는 영향이 크다. 군내 무종교인의 수는 50%에 달한다.

무종교인을 불교로 이끌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수계 인원이 일선사찰의 신도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 군종교구는 현재 군승 양성을 위해 기존보다 대폭증가한 83일간의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 TP위원회를 구성 교육편람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군종교구 자료 제공)



“포교인력 확충 위해 비구니 파송 시급” 조계종 군종교구 총무과장 지선 스님

조계종 군종교구 총무과장 지선 스님은 군포교의 시급한 과제로 군포교 현장의 인력확충을 들었다.

지선 스님은 “독신예외 조항인 9조 2항 폐지 이후 일종의 메리트가 사라진 것은 사실”이라며 “출가 연령 노령화 등과 맞물려 군포교 현장에서 인력부족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지선 스님은 “대안으로 비구니 스님들의 파송이 꼽히고 있다”며 “현재 민간인 성직자로 8분의 비구니 스님들이 활동하고 있다. 복장 및 두발 문제 등 제반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소개했다.

지선 스님은 “수계장병 사후관리를 위해 전산화 프로그램을 기획 중에 있다”며 “천주교 교적제도가 롤 모델”이라고 말했다.

지선 스님은 “군법사들의 수보다 자질이 먼저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정예군승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법당도 신도 포교 진행해야” 현역 최선임 김용 법사

군종감인 김용 법사(대령)는 군법당도 신도교육을 통해 신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 법사는 “군법당도 일반 사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일요법회, 어린이집 등 대중에게 다가가는 포교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 법사는 또 현대인들의 생활에 맞춘 일선사찰의 변화를 주문했다.

김 법사는 “포전에서 교도소를 나온 사람이 군법당에 찾아온 적이 있다”며 “교도소에서 일요법회를 매주 들었다는 그 사람은 일요법회를 진행하는 사찰이 없어 군법당에 왔다”고 말했다. 김 법사는 “일반 사찰도 현대인들의 삶에 맞게 양력 위주로 행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법사는 “일선 현장에서 군 인터넷과 인터넷 카페를 이용해 수천명의 장병들에게 사이버 포교를 진행 중인 군법사들이 있다”며 “카톡,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하면 법회를 못나온다고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성법회보다 문화콘텐츠 강화” 유선재 대불련 군포교지원단 단장

유선재 대불련 군포교지원단 단장은 “400여 법당 중 군법사가 있는 사찰은 140여개에 불과하다”며 “전방부대로 갈 수록 법회를 보지 못하는 군법당이 많다”고 말했다.

유 단장은 군법교가 발전하려면 군법사 수가 일단 늘어야 하고 재가 포교사들이 보다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바탕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단장은 또 “단순한 육성법회 보다는 문화활동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지원하는 눈높이 법회가 되어야 한다”며 “교구차원에서 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 나서면 된다”고 말했다. 유 단장은 민간에서의 활동을 소개했다. 유 단장은 “지난 4월 군포교 일선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모여 사례를 공유하고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수련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 단장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매주 일요일이면 전방 부대를 찾아 법회를 진행하는 재가불자들이 있다”며 “군법사들과 민간 포교사, 여러 불교단체들이 함께 연계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dvertisement for Partner's 2012 new product '경전학습기' (Kyeongjeon Hyeokseugi). The ad features images of the device and text describing its features: '보고 · 듣고 · 배우는~' (Look, Listen, Learn), '첨단혁명의 간편한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Advanced revolutionary portable audio-visual Kyeongjeon Hyeokseugi!). It lists benefits like '일부씩 공부하다 보면, 일관성이 떨어지며 기억하기가 매우 힘들습니다.' (If you study a little at a time, consistency drops and it's hard to remember). It also lists features like '영어·중국어·일어의 회화기능 외 여러가지 부가기능까지~' (Conversation functions for English, Chinese, and Japanese, plus various additional functions). Contact information: 신한M&B 경전학습기 사업부 (02)2061-9924~5, 010-2950-9398.